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가 8월 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정무국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새로운 부서를 내올데 대한 기구문제를 검토심의 하였으며 당안의 간부 사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 협의하였었다.



결정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하였었다.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은 이밖에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토의 하고 그 집행을 승인 하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회의에서 토의된 문제들을 결론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이 무한한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담당한 부문의 사업들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당중앙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옳바른 사업방향과 중심을 유지하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모든 사업을 당중앙의 사상과 방침적요구에 맞게

해당한 대책에 대하여 합의하였었다.

실태보고서를 료해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하시었다.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

회의에서는 또한 정부기관의 주요직제 간부들의 사업정형에 대하여 평가하고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당중앙이 특별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큰물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큰물 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었다.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련일 내린 많은 비와 폭우에 의해 은파군 대청리지역에서 물길제방이 터지면서 단층살림집 730여동과 논 600여 정보가 침수되고 179동의 살림집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많은 살림집들과 농경지가 큰물로 침수되었다는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피해현장에 나가시어 실태를 직접 료해하시면서 피해지역 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파군 시키고 안정시키며 위로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무위원장 예비량곡을 해제하여 피해지역 인민 들에게 세대별로 공급해주기 위한 문건을 제기할데 대하여 해당 부문에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침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등 필수물자들을 시급히 보장해주어 빨리 안착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세대들이 전적으로 맡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파군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인민무력성의 간부들로 피해복구사업지휘부를

조직하며 지휘부는 일단 현지에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 하면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력량편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보고 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파군 농장마을 800세대를 본보기로 새로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들어 공사를 빠른 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에도 피해복구건설사업에 군대를 동원 할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 군대에서 필요한 력량을 편성하여 긴급

이동전개시키며 군내인민들과 함께 파괴된 살림집과 도로, 지대정리사업 을 선행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파군 건설사업에 필요한 세멘트를 비롯한 공사용자재보장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타산된 소요량 에 따라 국무위원장 전략예비물자를 해제하여 보장할데 대하여 지시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파군 국가계획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 은파군 피해복구건설사업과 관련한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할것을 호소하시었다.

본사기자